

# 지역에 대한 애착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Place Attachment on the Happiness of Residents  
: Focus on Seoul

엄영호\* · 엄광호\*\*

Eom, Young Ho · Eom, Kwang Ho

##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사회통합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로 이해하였다. 기존 행정학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심리적 요인 특히 지역주민의 장소 애착으로서 고향인식수준과 출신지역의 거주 여부 및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행복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의 서울서베이(Seoul Survey) 도시정책지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Panel analysis)의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은 양(+)의 방향으로 행복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출신과 무관하게 장소에 대한 애착은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출신지역의 거주 여부가 행복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출신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을 형성한 경우 행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대한 장소

\* 주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졸업

논문 접수일: 2017. 4. 25, 심사기간: 2017. 4. 25~2017. 6. 15, 게재확정일: 2017. 6. 15

애착이라는 설명변수가 가지는 이론적·정책적 함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주민의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및 정부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적합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닌 함의가 있다.

□ 주제어: 행복지수, 장소 애착, 고향 인식도, 서울서베이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investigate how local residents' sense of stability can affect their happiness. In the study, happiness is defined as a value which can appear through the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ociety. Paying attention to a psychological factor, especially the local residents' place attachment, the research suggests what government should do to make its residents happier. Panel analysis(fixed effect) based on Seoul survey data, collected from 2007 to 2014, was used for the analysis.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place attachment factors based on the sense of stability, economic factor, infra structure, green space and environmental factor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Interesting finding of the research is that, individuals who perceive Seoul as their hometown tended to feel higher level of happiness, no matter where they are actually from. The finding indicates that local residents' place attachment can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The study can help local governments provide higher quality of public service by giving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factors which can increase the local residents' happiness.

□ Keywords: Happiness, Place Attachment, consciousness of Hometown, Seoul Survey

## I. 서론

본 연구는 사회과학에서 더 이상 새롭지 않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주제인 행복이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인지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 혹은 장소애착을 주요한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폭발적인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인프라와 문화, 복지 등에 있어서 양적측면의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했

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도시로 집중되고 낮은 정주인구와 높은 유동인구의 특징이 나타난다. 산업화를 통한 부의 증대는 그 이면에 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질적 제고 문제를 동시에 수반하여 왔다.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은 주요 글로벌 보고서의 순위를 통해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환경, 소득,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삶의 만족도 등 11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47위, 2015년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발표한 세계의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에서는 조사대상국 143개국 중 118위로 전체 평균 점수 71점보다 12점이 낮은 59점을 받았다. 이는 내전 중인 팔레스타인, 가봉 등과 같은 순위에 해당된다. 즉, 한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 등 양적 측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인의 행복 등 질적 측면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질적 성장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의 낮은 행복은 개인의 잘못인가? 이와 관련하여 이윤희(2010)는 행복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국가가 개인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고찰되어야 한다.

1990년대 이전 과거의 지방정부의 시정목표는 경제적 차원에 집중되었으나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화두는 경제와 더불어 행복과 삶의 질의 문제가 중점이 되고 있다. 즉, 잘 사는 지역이 강조되었으나 경제성장 이면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 지역 간 복지 불균등, 행복의 격차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조직운영과 역할에 있어서 전통적인 측면의 공공성이 확대되어 개인의 행복에 이르기까지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정명은, 2012; 정명은·김미현·장용석, 2014). 따라서 최근의 행복에 관한 연구경향은 확대된 맥락에서의 삶의 질과 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다양한 시각에 관하여 연구되었다. 또한 개인의 특성 이외의 국가 혹은 사회차원에서의 개인의 행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나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김병섭 외, 2015; 이현국·이민아, 2014).

정부 역시 국민의 행복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강조하고 있다. 즉, 개인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던 행복 역시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정부의 역할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정기조와는 별도로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정부 역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치·경제·사회 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복지의 시대를 맞아 각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인 행복추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역할과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행복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사회통합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로 이해되

고 있다(장용석 외, 2012). 즉, 행복은 더 이상 사적영역에서만 이해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행복은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정책학 및 행정학 등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당위성을 넘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지표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의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호흡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하므로 보다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개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시정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매년 전 세계 공공기관들이 출품한 행정서비스 또는 정책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에 2010년 여성행복프로젝트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1년은 가출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 2013년에는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정책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결과로 이어졌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시작으로 서울시민 개개인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이 행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들 특히 여성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왔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이며, 이는 2015년 UN 공공행정상에 다시 한 번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행정학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요인 및 수준이 행복의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여 왔다. 주요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 및 소득수준, 생활환경으로서의 녹지공간과 문화 소비 등이 행복에 긍정적인(+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왔다. 반면, 개인의 주관적 인지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경향은 개인의 주관적 인지 역시 객관적 요인과 더불어 행복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행정학 연구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단순히 개인의 객관적 인지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한 주관적·상대적 생활수준이 중요해지고,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 계층에 대한 이동가능성이 중요한 행복의 지표로 주장된다(김현정, 2016). 기존의 개인의 성격, 만족도 등의 요인들과 더불어 사회문제 나아가 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또는 장소에 대한 애착에 의해 나타나는 인지적 상호작용을 본 연구의 핵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장소 애착은 개인 또는 단체의 경험이 투영되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함께 부여하는 것으로,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특별한 장소성을 의미한다(최열·임하경, 2005). 특

정장소에 대한 연상되는 사건 또는 다양한 감정들이 반복되고 감정이 고착되게 되면 장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인 친밀감 및 안정감 그리고 행복감 등을 인지하게 된다(Thomson, Macinnis and Park, 2005)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행복을 개인의 독립적 결과물이 아닌 상호 연관된 유기체로 파악하고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행정학 연구에서는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의 서울서베이(Seoul Survey)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하며,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과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분석과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행복

행복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며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속성으로 그 개념에 있어서 획일적인 정의는 불가능하다. 이는 행복이 시대와 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행복은 다양한 연구에서 개념적으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정의되며 인지적 삶의 만족감, 빈번한 긍정적 정서, 낮은 부정적 정서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측정되어 왔다(Diener, 1984, 정명은·김미현·장용석(2014)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행복은 크게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다. 이론적으로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안정적인 내재적 성향을 강조하여 개인의 기질을 강조한 하향 확산이론(Top-down spillover theory)과 외재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Sirgy, 2001; 최말옥·문유석, 2011). 방법론 측면에서는 행복측정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를 통한 양적분석을 하는 객관적 모델과 주관적 평가에 의한 만족감으로 규정하는 주관적 모델, 이 둘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모델 등이 제시되었다(이민정, 2013).

행복은 다양한 학문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연령, 건강, 교육수준, 소득, 성격, 종교, 결혼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분석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이해되었다(Andrew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Gerdtham & Johannesson, 2001; MacArthur & Wilson, 1967; 김명소 외, 2003; 김승권 외, 2008; 조명환 외, 1994; 차경호, 1999).

보다 구체적으로 행정학 분야를 살펴보면, 행정학 분야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의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의 영향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정책결정의 수단으로서, 사회 특성 이해를 위한 지표로서 행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행정학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고명철·최상옥, 2012; 김현정, 2016; 우창빈, 2013). 또한 행복은 정부의사결정에 있어서 도시 간, 지역 간의 삶의 질 불균형 완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가능하다고 주장되었고(Gastil, 1970; Schneider, 1976)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신뢰성 있고 타당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Milbrath, 1979).

고명철·최상옥(2012)은 행정학 분야의 행복(삶의 질)에 관하여 국내외 연구를 정리하였다. 해외 행정학 연구의 경우 크게 공공환경개선, 사회현상 분석, 정책현상 분석이라는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먼저, 공공환경개선을 위한 연구는 시민들의 선호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현상 분석은 행복을 시민들의 가치가 반영된 하나의 사회 특성으로 간주하여 시민들의 이해가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책효과성 연구는 여러 가지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에 의한 결과물로서 행복을 이해하고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는 초기의 박병식(1988)의 행정평가지표로서 삶의 질을 분석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0년대 초중반에 연구가 폭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국 행정학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행복 혹은 삶의 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보다 폭넓은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행정학 측면에서 보다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로서의 행복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연령, 성별, 소득, 인종, 교육, 혼인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더불어 행복을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따른 가치로서 이해하고 정부의 주요한 정책지표로서 행복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즉, 행복은 개인의 독립적 결과물이 아닌 상호 연관된 유기체 즉, 심리요인 하나만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리요인과 그 외의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행복이란 주관적인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남희은 외, 2011). 장용석 외(2012)의 연구에서는 행복을 사회통합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라고 설명한다. 과거 개인의 행복은 이기적인 인간욕구의 결과물로 여겨졌고 개인 고유의 특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는 무관하거나 과도한 행복추구의 결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이해되었으나 행복은 사회적 산물임과 동시에 오직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창출되는 가치로 배제보다는 사회적 유대와 결속의 강

화를 통해 달성가능하다고 주장한다(장용석 외, 2012). 나아가 행복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 하나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이 다양하게 도출(우창빈, 2013) 가능하므로 학문적 특성에 따른 개념 도출의 신중함이 요구될 수 있다.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 Easterline(1974)은 개인의 행복과 소득 사이의 단선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도의 상승이 정체되거나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스탈린 패러독스 혹은 행복의 패러독스로 제기되는 이 연구결과는 행복 연구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시켜 주었다. Inglehart(1990)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특정 수준을 넘으면 수확체감을 보이며 사실상 행복은 소득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Diener(1984) 역시 여러 연구를 통해 연령, 성별, 수입, 인종, 교육, 결혼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행복의 개인차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지 8-15% 정도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윤희(2010)는 행복이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결정됨으로 행복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음을 이유로 국가나 사회체제가 개인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질적 역량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로서 지역 주민의 행복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행복을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많은 연구에서, 심리적(주관적) 설명변수로 개인의 건강 인식, 가족관계의 만족도(Diener et al., 1999; 이영빈·정창무, 2013)나 사회적 신뢰도(Helliwell & Putnam, 2004), 안정적인 애정관계(혼인유무)(Blanchflower & Oswald, 2004), 낙관주의, 대인관계,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일반적인 정신건강(김명소·한영석, 2006)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 역시 개인적인 특성에 의한 행복 설명에서 나아가 개인이 환경과 주관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김선아·박성민, 2014). 따라서 주관적 안녕으로써 만족감과 기쁨(김승권 외, 2008)이나 사회관계(김태룡 외, 2000), 타인과의 관계성(Ryff & Keyes, 1995; 정은의·노안영, 2007), 도시거주 자긍심(김상곤·김성중, 2008) 등이 주요한 독립 변수로써 설명되고 있다.

## 2. 장소 애착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 행복 연구는 심리적 안정감에 주목한다(D'Amico & Giuliani, 2004; 김동근, 2011). 여기서 심리적 안정감은 많은 연구들에서 장소 애착으로 이해되고 설명되어 왔다(이세규, 2016; 최열·임하경, 2005). 이는 장소가 개인과 공동체의 경험이 축적된 특별하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Canter, 1997). 특히, 장소 애착

(place attachment)은 특정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 문화적,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Altman & Low, 1992). 이러한 장소에 대한 애착은 개인에게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해 행복감을 비롯하여 안정감, 평온함, 친밀감, 소속감 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김동근, 2011, 이세규, 2016; 최열·임하경, 2005). 장소 애착은 크게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착근성으로 구분되며, 장소유형성과 장소성, 공동체의식 등의 연구에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이세규, 2016).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은 장소에 대한 공동체의 상징적 감정으로 장소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선호 및 가치부여, 활용목적, 역사적 행태 및 구성원의 성향이 경험여부와 무관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Giuliani & Feldman, 1993; Pronshansky·Fabian·Kaminoff, 1983; Shamai, 1991; Williams & Roggenbuck, 1989). 또한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이란 사람들의 목적 지향적 행동에 의해 형성되는 기능적 애착으로, 장소에 대한 지속적 방문과 이용에 의해 장소의존성이 장소정체성으로 발전 가능하다(있다(McCool & Martin, 1994; Stokols·Shumaker, 1981; Williams & Roggenbuck, 1989). 마지막으로 장소착근성(place rootedness)은 오랜 거주를 통해 형성되는 뿌리의식을 의미한다. 문화적 동질감 또는 고향에 대한 애착 등으로 형성되어 나타난다(Gustafson, 2001; Shumaker & Taylor, 1983; Tuan, 1974).

장소 애착에 대한 구체적 설명으로서 D'Amico & Giuliani(2004)는 고향에 대한 인지 여부를 제시한다. 고향에 대한 인지가 감정적인 안정감과 친밀감 등을 형성시킨다고 설명한다. 장소에 대한 애착은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측면에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논의된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감은 장소에 대한 애착을 통해 형성되며, 고향이나 고향집에 대한 인식이 이를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고향에 대한 인식 즉, 장소애착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지방정부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낮은 정주성과 높은 도시 이민자들, 바쁜 삶과 개인주의적 생활행태로 인해 지역에 대한 친밀감과 공동체성이 매우 낮다. 그러나 많은 인구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와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체성 회복과 지역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은 경제적 요소로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장소에 대한 애착은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거환경 및 관광자원의 획득, 휴양관광지 및 환경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Bricker & Kerstetter, 2000; Vaske & Korbin, 2001; Willan & Vaske, 2003)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지속적 거주의도에 영향(박소영, 2016)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한 지역에 대한 애착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주요한 설명변인인 지역에 대한 애착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고향인지여부가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게 하고, 그 결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D'Amico & Giuliani(2004)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지역에 대한 애착을 검정하기 위하여 도출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이 증가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비서울태생의 거주율이 높고 인구이동이 많은 대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검정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태어난 곳의 경우 장소에 대한 애착이 높고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검정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출생지역에 거주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서울이 가지는 낮은 정주성과 높은 도시 이주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요인으로서 서울태생여부와 고향인식 수준에 관한 상호작용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검정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장소 애착이 형성된 출생지역에 거주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 Ⅲ. 연구설계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주관적인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의 서울서베이(Seoul Survey)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서울서베이는 서울도시정책지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시정책의 객관적 검증 및 서울시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서울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 자료이다. 설문은 2003년부터 매년 10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만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 자료로 표본추출방법은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sup>1)</sup>을 이용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인구, 경제, 도시발전과 주거, 문화, 관광, 복지, 여성과 가족, 환경, 교통, 정보와 참여, 안전과 재난, 가치와 의식 등 총 12개 분야별 지표에 관련된 사항과 가구조사 기본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으로 이는 핵심적인 설명변수들인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서울태생 여부) 문항이 서울서베이에 포함된 2007년부터 가장 최근까지인 2014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설문문항은 연도별로 문항번호에 차이가 있을 뿐 매년 질문과 하위 문항이 동일한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 측정지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은 서울서베이의 행복지수 문항을 이용하였다. 가장 불행한 상태인 0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인 10까지의 척도로 구성되며, 자신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5개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열척도로 구성된 각각의 5개 하위문항을 본 연구에서는 하위 5개 문항의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값으로 대푯값으로 산출하여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 때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423$ 이었고 1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또한 주요한 독립변수는 이론적 논의 및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서울이 가지는 대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태생 여부와 서울태생이면서 고향이라고 인식하는지 상호작용효과 요인을 추가하였다. 주요 변수인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은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와 서울태생을 구체적인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서울 시민 고향인식도의 설문 응답을 활용하여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면 1 아니면 0으로 가변수로 구성하였다. 서울태생 역시 서울태생이면 1 아니면 0으로 구성하였다. 이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으로써 서울태생이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는지를 상호작용효과로 분석하였다.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및 주요 이론들을 통해 주장되어 왔던 변인들을 통제해주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서베이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관적 문항을 바탕으로

1) 층(stratum)은 구, 동, 주택유형을 층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층은 구, 25개로, 제2층은 동(행정동), 423개, 제3층은 주택유형, 4개이다. 집락(cluster)은 동일한 통/반의 동일한 주택유형을 갖는 세대들을 묶어 집락(cluster)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요인, 사회인프라 요인, 녹지문화환경 요인과 상대적으로 객관적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응답자의 특성인 학력, 혼인여부, 성별, 연령, 주택점유형태와 시계열 자료이므로 연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제적 요인은 가구소득과 정치·경제·사회적 계층 인식 지표를 이용하였다. 가구소득으로 100만원 미만=1, 200만원 미만=2, 300만원 미만=3, 400만원 미만=4, 500만원 미만=5, 500만원 이상=6으로 구성된 문항을 이용하였다.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상상=1부터 하하=6 까지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인프라 요인은 보행환경만족도, 교통이용만족도, 도시위험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보행환경만족도와 교통이용만족도는 매우불만족=1에서 매우만족=5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행환경만족도는 주거지역과 도심지역의 2개 하위문항의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alpha = 0.7033$ 이었다. 교통이용만족도는 버스, 지하철, 택시의 3개 하위문항의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alpha = 0.6118$ 이었다. 도시위험도는 전취위험하지않다=1에서 매우위험하다=5 까지 5점 척도이며, 재해, 치안, 범죄, 사고의 4개 하위문항의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산출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 0.7984$ 이었다.

녹지문화환경 요인은 녹지환경과 문화활동 지표를 이용하였다. 녹지환경은 거주 지역의 녹지에 대한 만족도로 매우불만족=1에서 매우만족=5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활동은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역시 매우불만족=1에서 매우만족=5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적인 응답자 특성에 따른 행복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기간, 학력, 혼인, 성별, 연령, 주택형태, 주택점유형태를 포함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요약 표

구분		변수	설명
종속변수		행복	매우 불행=1에서 매우 행복=10 (자신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5개 하위문항의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산출)
독립변수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	고향인식도(a)	고향으로 느끼면 1, 아니면 0
		서울태생(b)	서울태생=1, 비서울태생=0
	상호작용효과	서울태생의 고향인식도(a*b)	서울태생*고향으로 인식=1, 서울태생*고향으로 인식하지 않음=0

구분		변수	설명
통제변수	경제적 요인	주관적 정치·사회·경제적 지위	상상=1, 상중=2, 중상=3, 중하=4, 하상=5, 하하=6 (*역코딩)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1, 100~200만원 미만=2, 200~300만원 미만=3, 300~400만원 미만=4, 400~500만원 미만=5, 500만원 이상=6
	사회인프라 요인	보행환경만족도	매울불만족=1에서 매우만족=5
		교통이용만족도	매울불만족=1에서 매우만족=5
		도시위험도	전혀위험하지않다=1에서 매우위험하다=5 (*역코딩)
	녹지문화환경 요인	녹지환경	매울불만족=1에서 매우만족=5
		문화활동	매울불만족=1에서 매우만족=5
	학력	초등학교 졸업=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전문대) 졸업=4, 대학교졸업=5, 대학원수료/졸업=6	
	혼인	기혼=1, 기혼 이외=0(미혼, 이혼/별거, 사별)	
	성별	남자=1, 여자=0	
	연령	각 연령별 더미변수 사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주택점유형태	자가=1, 자가 이외=0(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 및 기타)	
	연도	각 연도별 더미변수 사용(2007-2014)	

### 3. 분석방법

분석에 사용된 서울서베이 통계자료는 2007년부터 매년 관찰된 정보를 포함시키는 합동 횡단면데이터(pooled cross-sectional data)의 형태로 수집된 시계열 자료이다. 매년 동일한 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관찰한 패널 데이터는 아니므로, 자연과학에서는 이를 종단면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개체가 개인, 회사, 가구, 국가 등을 경우 패널데이터라고 혼용해서 사용한다(민인식·최필선, 2010a). 합동횡단면 데이터를 통한 결합 시계열 분석의 경우, 횡단자료와 종단자료를 결합함으로써 분석대상 뿐만 아니라 시점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Sayrs, 1989)과 횡단면 분석 및 시계열 분석에서 통제 불가능한 누락변수(unobservable omitted variable)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회과학연구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최충익, 2008).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은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Y = \alpha + \sum_{j=1}^p \beta_j X_{jit} + \sum_{k=1}^q \delta_k Z_{kit} + \nu$$

여기에서  $Y$ 는 종속변수,  $\alpha$ 는 상수,  $X_{jit}$ 는 독립변수,  $\nu$ 는 오차항,  $i$ 는 횡단면의 수,  $t$ 는 시계열의 수,  $p$ 는 독립변수의 수,  $q$ 는 통제변수의 수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오차항에 따라 분석모형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로 구분된다.

$$\nu = \mu_t + \lambda_t + v$$

여기에서  $\mu$ 는 관찰되지 않은 개별 효과를,  $\lambda$ 는 관찰되지 않은 시간효과,  $v$ 는 확률적 교란항(remainder stochastic disturbance term)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은 수집된 자료의 성격과 분석의 필요에 따라 표본에 포함된 각 ID와 관찰시점을 나타내는 모조변인을 만들어 각 모조변인에 의한 상수항으로 절편의 값을 달리한다. 반면 확률효과모형은 ID와 관찰시점의 영향을 각각의 분석에서 얻어지는 무작위 변인들로 추정된 후 그 평균을 공통절편으로 추정하고 이를 상수항으로 대체하여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선택은 이론적 논의 외에도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한 통계적 선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STATA SE 13.0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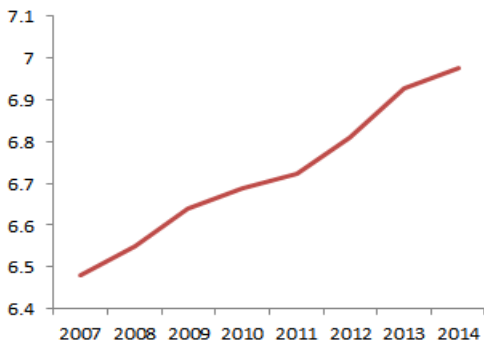
## IV. 분석결과

### 1. 응답자특성 및 기술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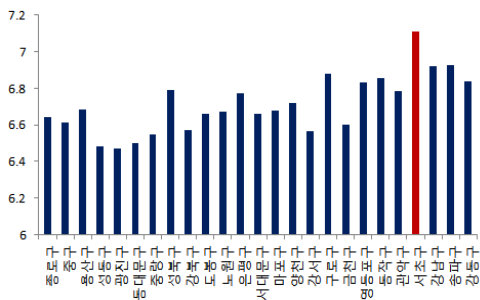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서울서베이 자료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이 36.3%로 가장 많으며 대학교 졸업(25.36%), 대학졸업(19.88%)의 순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응답자 특성 현황

구분	구분	빈도	퍼센트
학력	초등학교 졸업	18,991	5.03
	중학교 졸업	44,812	11.86
	고등학교 졸업	137,116	36.30
	대학(전문대) 졸업	75,115	19.88
	대학교졸업	95,820	25.36
	대학원수료/졸업	5,920	1.57
혼인	기혼	253,519	67.02
	미혼	96,134	25.41
	이혼/별거	11,112	2.94
	사별	17,517	4.63
성별	남자	182,510	48.25
	여자	195,772	51.75
연령	10대	30,281	8.00
	20대	54,034	14.28
	30대	76,151	20.13
	40대	91,220	24.11
	50대	67,118	17.74
	60대이상	59,478	15.72
주택점유형태	자가	164,053	58.28
	전세	99,687	35.41
	보증부월세	10,217	3.63
	월세	6,399	2.27
	무상 및 기타	1,158	0.41
서울대생	서울대생	165,487	43.75
	비서울대생	212,795	56.25



<그림 1> 연도별 행복지수



<그림 2> 지역별 행복지수(평균)

응답자의 혼인여부를 보면 기혼이 67.0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성별은 남성이 48.25%, 여성이 51.75%의 분포를 보인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 30대, 20대의 순이었고, 응답자의 43.75%는 서울대생임을 알 수 있었다.

기술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특히 종속변수인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지수의 평균은 6.72로 나타났으며, <그림 1>과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그림 2>와 같이 서초구가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향인식도 지표는 평균 0.79, 자부심은 20.99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의 지표들 중 서열적도 구분되는 지표는 단순히 평균으로 나타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참조를 위해 제시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양측검정을 실시하였고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sup>2)</sup>, 상호작용항이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회귀모델의 편향성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계수값 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IF 검정을 통해 그 값이 10을 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나, 변수간 통계적 상호성의 문제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나 추정적으로 그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장소 애착을 통해 행복을 연구한 D'Amico & Giuliani(2004) 등의 연구를 검토하여 모형 설정 및 연구가설, 연구설계 등의 전반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고 분석하여 온 모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 기술통계 결과

구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행복지수	378282	6.72	1.23	0	10
독립변수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	고향인식도	378282	0.79	0.40	0	1
		서울대생	378282	0.44	0.49	0	1

구분		변수	분산팽창계수(VIF)	1/VIF	
2)	독립변수	심리적 안정감			
			고향인식도	1.43	0.697536
			서울대생	6.92	0.144513
	상호작용효과	서울대생 X 고향인식도	7.81	0.128103	

\* VIF 테스트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전체를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만 분산팽창계수 결과 제시함.

구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통제변수	경제적 요인	정치사회경제적지위	378053	3.96	0.81	1	6
		가구소득	374910	4.32	1.37	1	6
	사회인프라 요인	보행환경만족도	377963	3.35	0.68	1	5
		교통이용만족도	377403	3.46	0.61	1	5
		도시위험도	378263	2.86	0.79	1	5
	녹지문화환경 요인	녹지환경	285203	3.30	0.87	1	5
		문화활동	378049	3.33	0.77	1	5
		학력	377696	3.54	1.18	1	6
		혼인	378282	0.67	0.47	0	1
		성별	378282	0.48	0.50	0	1
		연령	378282	3.77	1.50	1	6
		주택점유형태	281514	0.58	0.49	0	1
	연도	378282	2010.48	2.29	2007	2014	

## 2. 행복 영향요인 패널회귀분석 결과

행복지수를 종속변수로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을 독립변수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인 모형은 통제변수들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정한 통제모형과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에 대한 독립변수들을 검정한 고정효과모형,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 요인의 고향인식과 서울태생의 측정지표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상호작용모형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 및 주요 이론에 기반한 통제모형의 경우 경제적 요인, 사회인프라 요인, 녹지문화환경 요인을 비롯하여 학력, 혼인여부, 성별, 연령, 주택점유형태, 연도변수를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8개년 184,058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살펴보면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 요인인 서울주민의 고향인식도와 서울태생여부 모두 행복에 양(+ )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 1과 2 모두 지지되었다. 심리적 안정감 요인으로서 먼저, 장소에 대한 안정감을 확인했던 서울시민의 고향인식도의 경우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인 서울태생의 경우 역시 서울태생들이 다른 도시이주민들에 비하여 더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패널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구분	통제모형		고정효과모형		상호작용모형	
			Coef.	S.E.	Coef.	S.E.	Coef.	S.E.
독립변수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	고향인식도	-	-	<b>0.254***</b>	<b>0.008</b>	<b>0.231***</b>	<b>0.009</b>
		서울태생	-	-	<b>0.123***</b>	<b>0.003</b>	<b>-0.066***</b>	<b>0.017</b>
	상호작용효과	서울태생 X 고향인식도	-	-	-	-	<b>0.093***</b>	<b>0.018</b>
통제변수	경제적 요인	주관적 정치사회경제적 지위	-0.259***	0.004	-0.260***	0.004	-0.260***	0.004
		가구소득	0.129***	0.002	0.123***	0.003	0.123***	0.003
	사회 인프라 요인	보행환경만족도	0.199***	0.004	0.182***	0.005	0.181***	0.005
		교통이용만족도	0.289***	0.005	0.280***	0.005	0.280***	0.005
		도시위험도	-0.073***	0.003	-0.074***	0.004	-0.073***	0.004
	녹지문화 환경 요인	녹지환경	0.043***	0.003	0.039***	0.004	0.039***	0.004
		문화활동	0.065***	0.004	0.057***	0.005	0.057***	0.005
	학력		0.107***	0.003	0.104***	0.003	0.103***	0.004
	혼인(기혼=1)		0.266***	0.008	0.272***	0.009	0.273***	0.009
	성별(남성=1)		0.009	0.006	0.010	0.007	0.010	0.007
	연령 (기준: 40대)	10대	0.637***	0.013	0.586***	0.016	0.583***	0.016
		20대	0.396***	0.011	0.367***	0.013	0.365***	0.0128
		30대	0.170***	0.008	0.149***	0.010	0.148***	0.010
		50대	-0.100***	0.009	-0.098***	0.010	-0.100***	0.010
		60대 이상	-0.420***	0.001	-0.428***	0.012	-0.427***	0.012
	주택점유형태(자가=1)		0.086***	0.006	0.076***	0.007	0.077***	0.007
	연도 (기준: 2014년)	2007년	-0.214***	0.008	-0.202***	0.009	-0.204***	0.009
		2008년	-0.197***	0.008	-0.181***	0.008	-0.183***	0.008
		2009년	-0.204***	0.008	-0.197***	0.008	-0.198***	0.008
		2010년	(omitted)					
		2011년						
2012년								
2013년								
_cons		4.877***		4.848***		4.869***		
rho		0.000		0.215		0.215		
Prob > F		0.0000		0.0000		0.0000		
R-squared	within	0.2387		0.2449		0.2451		
	between	0.2356		0.2381		0.2383		
	overall	0.2381		0.2435		0.2436		
Number of obs		184058		184058		184058		

\*p<0.1, \*\*p<0.05, \*\*\*p<0.01

기존 선행연구 및 주요 이론들에 따르면, 행복은 심리적 측면 외에도 경제적 인식이나 주변 생활 환경 역시 중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행복에 양(+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경제적 요인 및 사회인프라, 녹지문화 환경 등의 요인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제적 요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치·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할수록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프라 요인의 경우, 보행환경이 만족스러울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위험도가 위험을 더 크다고 느낄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문화적인 만족도 및 거주 공간 및 주변의 녹지환경 역시 행복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녹지환경 및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대한 통제변수의 경우 통제모형과 동일하게 성별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 영향력을 나타낸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일 때, 자가주택을 소유했을 때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 40대에 비하여 10대, 20대 및 30대는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와 60대는 40대 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모형을 통해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소에 대한 애착을 통해 안정감을 형성하면 행복한 것인지, 단순히 고향에 살면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통계적인 검정을 통해 그 답을 제시하였다.

상호작용모형의 경우,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 요인들이 고정효과모형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할 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이전 모형과 동일하나, 서울출신들의 행복지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호작용항의 경우 양(+ )의 방향으로 행복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출신이 서울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울출신이어도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과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고향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행복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적으로 서울 출신이어도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D'Amico & Giuliani(2004)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론으로 심리적 안정감 구체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 등의 변수가 한국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함의를 지닌다. 통제변수들의 경우 고정효과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측치는 동일하게 184,058명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모형에서 상호작용모형으로 갈수록 설명력(R-squared)은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은 양(+ )의 방향으로 행복을 높이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의 요인이 지니는 이론적·정책적 함의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D'Amico & Giuliani, 2004). 넓은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지역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심리적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시 이주민들에 대한 장소 애착과 공감의 형성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정부들이 강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정책들이 어떠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높이고 참여와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서울은 높은 인구이동 비율과 낮은 정주성을 지역적 특성으로 가지고 있으며 비서울 태생의 인구가 많은 대도시이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 출신의 주민들의 경우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의 문제는 서울 거주와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더욱 이질감을 높이게 하므로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 거주 의향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김상곤·김성중, 2008).

나아가 행복이 지닌 상대적 가치의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화의 결과로서 행복을 높이기 위해 가구소득별, 정치·사회·경제적 지위별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즉, 지방정부는 사회 구성원 단위의 전략을 제시하고 사회갈등의 예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연결고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도시 구조와 미래 지역 사회를 고려하여 노인인구 및 중장년층의 행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요구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Seoul Survey)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특히, 지역출신과 무관하게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은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출신지역의 거주여부가 행복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출신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을 형성한 경우 행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D'Amico & Giuliani, 2004).

즉,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최근 지방정부에서 강조되어 추진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경우 지역주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측면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 나아가 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고려가 반영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이 갖는 대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시정운영의 방향성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이동이 많고 정주성이 낮은 지역 특성

을 지닌 지방정부들에게 정책적 함의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지역사회와 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를 공간으로 이해하고 공간에 사람을 이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sup>3)</sup>.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연구되었던 통제변수들의 결과 역시 기존 연구결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경제적 지위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 인프라 요인인 보행환경만족도, 교통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도시위험도가 낮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녹지 및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이 갖는 상대적인 가치에 관심을 갖게 한다. 즉, 가구소득별, 정치·사회·경제적 지위별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인프라, 녹지 및 문화 환경이 지역 간의 균형이 적절하게 반영된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 행복을 인식하는 것이 결국 사회갈등의 예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연결고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Ryff & Keyes, 1995; 정은의·노안영, 2007), 사회자본(정명은 외, 2014) 및 사회관계(김태룡 외, 2000) 등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고령화되고 있는 도시 구조와 미래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주요한 정책지표로서, 노인인구 및 중장년층의 행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역주민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및 정부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적합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경우,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구 단위의 세부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남3구와 다른 지역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비하여 세부적인 지역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 서울보다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들을 포함한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위한 작은 지역단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가 지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론적·정책적·실천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지방정부의 질적 역량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로서 행복 혹은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행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그 함의가 존재한다. 또한 행복에 대한 개념을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따른 가치로서 행복을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부의 책임과 사회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행정학적 측면에서 심리적 안정감(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변수를 통해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3) 2014년 종로구 계동에서 실시된 “공간잇기-계동”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와 나의 관계를 고찰하여 공간에 장소와 사람, 시간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노력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작은 프로젝트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명철·최상욱. (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126.
- 김동근. (2011). 단기 주거에서의 장소 애착에 대한 연구: 대학교 기숙사생 및 자취생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5): 79-90.
- 김명소·김혜원·한영석·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명소·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 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53(2): 97-121.
- 김상곤·김성중. (2008). 지역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5: 325-351.
- 김선아·박성민. (2014). 시민의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4): 173-210.
-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김태룡·오승석·주기남·안희정. (2000).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2): 135-155.
- 김현정. (2016). 소득불평등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계층상승 가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559-586.
- 남희은·백정원·류지선. (2011). 행복결정요인이 지역주민 건강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5(4): 53-63.
- 민인식·최필선. (2010a).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STATA학회.
- \_\_\_\_\_. (2010b). 『STATA 고급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STATA학회.
- 박병식. (1988). 주관적 행정평가에 관한 연구: 주관적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2(2): 497-531.
- 박소영. (2016). 문화관광축제도시의 지각된 도시브랜드개성이 도시태도 및 거주의도에 미치는 영향: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0(3): 215-226.
- 우창빈.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 이민정. (2013). 『한국사회 고령층의 행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세규. (2016). 장소애착이 도시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함평나비축제를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30(4): 331-352.
- 이영빈·정창무. (2013). 도시기반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77-88.
- 이윤희. (2010). 문화정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상 문화』, 58: 397-424.
- 이현국·이민아. (2014).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한국행정학보』, 48(2): 293-315.
- 장용석·조문석·정장훈·정명은.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289-322.
- 정명은. (2012). 지방정부의 경쟁적 세계화: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6(3): 241-270.
- 정명은·김미현·장용석. (2014). 서울시민의 행복과 사회자본 관계 분석: 행복한 시민, 따뜻한 지역 공동체. 『서울도시연구』, 15(1): 163-186.
- 정은의·노안영. (2007).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간 관계: 개별성-관계성의 조절효과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59-82.
- 조명환·김정오·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정책연구』, 16(2): 61-94.
- 차경호. (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8: 575-595.
- 최말옥·문유석. (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1): 277-297.
- 최열·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0(2): 53-64.
- 최충익. (2008). 패널모형: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한번에. 『국토』, 6: 120-127.
- Altman, I. & Low, S. (1992). *Place Attachment*, New York: Plenum.
- Andrew,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and London: Plenum, 20-31.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 1359-1386.
- Bricker, K. S. & Ketstetter, D. L. (2000). Level of specialization and place attachment: An Exploratory study of Whitewater Recreationists. *Leisure Sciences*. 22: 233-257.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Russell Sage Foundation.

- Canter, D. (1997). The environment, self and sense of place: Communicative foundation for regional ecosystem management.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ve Research*, 26: 301-318.
- D'Amico, A.M. & Giuliani, M.V. (2004). Place Attach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Martens, B.; Keul, A.G. (eds.), *Evaluation in Progress-Strategies for Environmental Research and Implementation*, IAPS 18 Conference Proceedings, eds. Martens, B. Keul, A.G.
- Dei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urkheim, E. (1997). *Las reglas del método sociológico* (Vol. 86). Ediciones Akal.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 89-125.
- Gastil, R. D. (1970).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96-601.
- Gerdtham, U. G. & Johannesson, M.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0(6): 553-557.
- Giuliani, V. & Feldman, R. (1993). Place attachment in a development and cultur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 267-274.
- Gustafson, P. (2001). Roots and roust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mobil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3(5): 667-686.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1435-1446.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cArthur, R. H. & Wilson, E. O. (1967). *The theory of island biogeography*. Princeton, New jersey.
- McCool, S. F. & Martin, S. R. (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22(3): 29-34.
- Milbrath, L. W. (1979). Policy relevant quality of life researc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44(1): 32-45.
- Proshansky, H. M., Fabian, A. K. & Kaminoff, R. (1983). Place identity: Physical

-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57-83.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
- Sayrs, L. W. (1989). *Pooled time series analysis*. Sage Publications, Inc.
- Schneider, M. (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3): 297-305.
- Shamai, S. (1991). Sense of place: An empirical measurement. *Geoforum*, 22: 347-358.
- Shumaker, S. A. & Taylor, R. B. (1983). Toward a clarification of people - place relationships: a model of attachment to a place. In N. Feimer & Galler, E.(Eds.), *Environmental Psychology: Directions and Perspectives*, New York: Praeger.
- Sirgy, M. J. (2001). Handbook of quality-of-life research: An ethical marketing perspective (Vol. 8).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Stokolos, D. & Shumaker, S. A. (1981). People in places: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In J.H. Harvey(Eds),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Hillsid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Thomson, M. MacInnis, D. J. & Park, W. C. (2005). The ties that bind: Measuring the strength of consumers' emotional attachments to brand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5(1): 77-91.
- Tuan, Y. E. (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 Vaske, J. J. & Kobrin, K. C. (2001). Place attachment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2: 16-21.
- Williams, D. R. & Vaske, J.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830-840.
- Williams, D. R. & Roggenbuck, J. W. (1989). *Measuring place attachment: Some preliminary result,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Research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 San Antonio, TX.



---

**업 영 호:**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제목: 한국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동형적 변화 분석: 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2014)를 취득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제도주의 조직론, 조직이론, 지방행정,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Why Untie Ai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South Korea’s Untied Aid from 2010 to 2013”(2016), “한국 ODA의 구속성 여부에 관한 경험적 분석”(2014), “지방정부간 재난관리의 차이는 왜 생기는가?: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을 중심으로”(2017) 등이 있다(eomyoungho@gmail.com).

**업 광 호:**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 공학석사 학위(도시유출모형을 이용한 빗물받이의 내수침수 영향성 분석, 2016)를 취득하고, 현재 (주)방재안전기술원 차장(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도시홍수, 방재, 재난정책수립 등이다. 주요 과업으로는 피해조사자동화시스템 개발(2009), 재난위험도 평가 및 예측 기반기술구축(2012-2016), 발전설비 자연재해 리스크 평가(2014),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해영향 분석기법 고도화(2014)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빗물받이 형상에 따른 차집량 산정식 개발(2016) 등이 있다.(eomkh83@gmail.com)

